

“北 핵 포기하고 화해·협력하자” “日 진실한 행동과 실천 나서야”

李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北·日 행동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제9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민족 독립과 자존의 3·1 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길은 평화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에는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할을 주문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 = 이 대통령은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화를 포기하고 화해·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족자존 의식을 가지고 남북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대결적 자세를 바꾸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6자회담 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대화에 나서고, 경제적 원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는 전제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남북대화의 의지가 높

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 이 대통령은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실용주의 대외외교 기조에서 직접적으로 식민주의시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촉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19세기 이래 우리는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면서 “지난해 간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과거사를 직시할 것으로 주문했다.

당시 간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통해 한일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인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면서도 “동아시아가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랜 이웃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사과가 전제될 경우 양국이 앞으로 펼쳐질 동아시아 시대에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3·1 정신은 세계주의~G20세대가 주역” = 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을 세계주의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했다. 기미독립선언문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개조의 큰 이상을 표출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국의 모범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뚝 성장한 것과 연결지었다.

특히 세계와 경쟁하고 일 자체를 즐기는 글로벌 청년 리더군을 G20 세대로 명명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G20 세대가 3·1 운동의 세계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선진일류국가로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얘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제사회 군사개입 검토… 공지 몰린 카다피

리비아 반군 곳곳서 승전보 등 국내·외 거센 압박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등을 검토하고 반군이 정부군을 격퇴하며 승전보를 올리는 등 무아마르 카다피 세력에 대한 국내 외 압박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리비아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 외곽의 도시를 차례로 함락한 가운데, 프랑스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용 총리는 지난 28일(현지시각)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카다피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나는 사람들이 군사적인 해결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군력을 동원,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카다피가 전투기로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

조치는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실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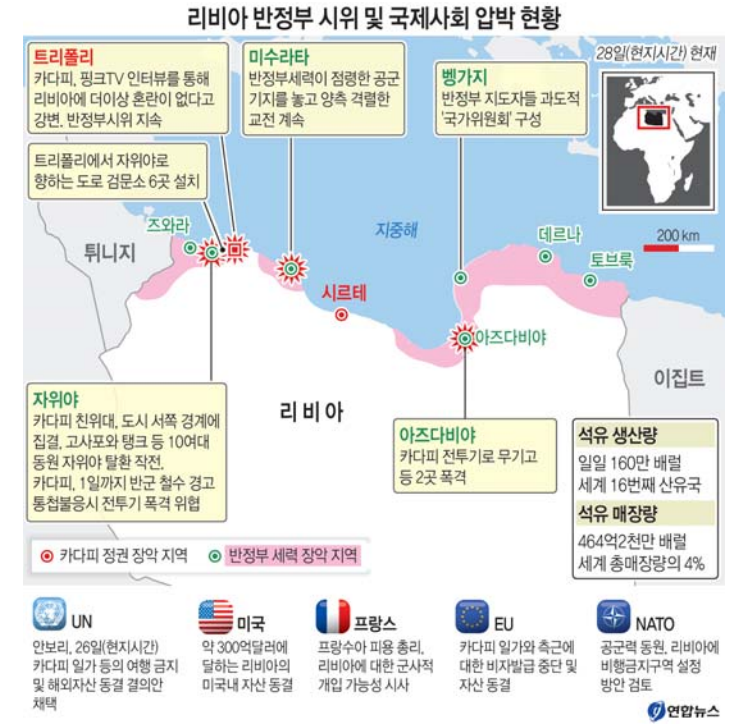
이와 관련, 리비아 공군기들이 이날 시위대가 장악한 제2의 도시 벤가지 인근 지역에 있는 무기고 2곳을 각각 폭격했다고 AFP 통신이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연합(EU)은 또 리비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만인 이날 카다피 일가와 측근 인사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자산 동결 조치를 결정, 카다피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리비아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카다피가 장악하고 있는 트리폴리에서는 이날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도시 미스라타 인근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이 이어졌다.

앞서, 반정부 세력은 전날 트리폴



리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위성 도시 알-자이야를 함락했으며, 이 도시의 시민들은 친카다피 세력이 탈환작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전지를 구축하고 있다.

반정부 세력에 속한 사반 아부 시타 변호사는 서부 지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친카다피 세력이 철수하

고 ‘혁명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라고 AFP 통신에 전했다.

반정부 세력은 리비아 제2의 도시 벤가지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 전역과 수도 트리폴리 외곽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친카다피 세력은 트리폴리와 카다피의 고향 시르테 등지에서만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민 철수 전세기 ‘항공료 논란’

“회사·개인사업자 부담원칙” vs “국가가 지원해야”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가 ‘항공료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전세기 항공료를 회사나 개인 사업자 부담하게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항공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지난달 28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리비아 탈출 전세기 항공료 개인 부담’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리비아 건설근로자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우리 정부는 교민과 건설 근로자들에게 항공료와 모든 경비를 청구했다”며 “우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필요 없고 모든 일을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감을 표했다. 서명인 수 50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청원은 1일 오전 11시 현재 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해외 사건·사고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을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없는 사항이며,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예산의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설명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철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후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고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해·공군 전력 리비아 인근 이동

반기문·오바마 백악관 회동

미국은 리비아 사태와 관련,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리비아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미군 해·공군 전력을 리비아 인근으로 전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레이먼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방부의 전략 수립자들이 다양한 비상계획들과 옵션들을 마련중이라면서 해군 함정과 공군 전력의 이동 사실을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8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30여분 동안 회담을 하고,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등지의 민간인 사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협심해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50m
SK주유소
현영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정품! 정량!! 난방유

SK삼보주유소

SK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한도럼당 4천원~6천원 할인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웨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연극,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몬키' 외 다수

스포츠 게임 천국

웹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랜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웨이커스 070 · 7581 · 7766
010 · 3549 · 9358